

기초長 공천권 시·도당에 이양

새정치 혁신위, 광역·기초의원도 ... 오늘 중앙위 개최 '긴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4차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2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4차 혁신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체성 확립 방안'의 발표가 연기되고 최고위원제 폐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등 민감한 쟁점들이 줄줄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도 혁신위 활동 전반을 둘러싸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난 17일 부산 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배제하고 이를 시·도당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9월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그 이후 실시되는 재보선 때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시·도당으로의 공천권 이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아예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도 시·도당에 이양하도록 했다. 혁신안은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 조정을 통해 주로 취약 지역에 배분되는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 10%에서 연차적으로 늘려 4~5년 내에 20%까지 증액하도록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정체성 확립 방안은 4차 혁신안에서 제외됐으며 권

역별 비례대표제 등 전국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도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배제됐다.

혁신위에서는 정체성 확립 방안과 관련, 이달 내에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20일 중앙위원회의 혁신안 의결을 앞두고 당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을 제외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도당 권한 강화 등 분권당방안은 취약지역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중앙위에서의 원외위원장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상곤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출직 당선 후 부임 초기에 또 다른 선출직에 나설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양해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임 초기 또 다른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혁신안을 의결할 20일 중앙위원회는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주류 측에서는 중앙위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의총과 중앙위에서 계파 간의 정면충돌이 벌어질 경우, 신당을 향한 당 내부의 원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해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및 광주지역 의료진들이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17일 캄프스푸에 있는 진료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캄프스푸(캄보디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사랑의 인술' 1년

광주시·의료계·시민사회단체·광주일보사 공동 개설

나눔과 연대 '광주정신' 실천... 2만3000여명에 인술 제공

동남아시아에서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진료소'의 개원 1주년 기념식이 지난 17일 캄보디아 캄프스푸 주(州)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2면>

이날 기념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심철의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보현·조오섭·반재신 시의원을 비롯한 최동석·류한호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지역 의료인과 봉사단원 등이 참석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오후 삼 오후 캄프스푸 주지사와 주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마을 주

민 500여명이 참석해 광주진료소 개원 1주년을 축하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진료소는 캄보디아와 광주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사랑의 매진지"라며 "캄프스푸 주민 여러분과 광주진료소가 함께 가꾸어 온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치하했다.

윤 시장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광주진료소가 되고 희망한다"면서 "캄보디아 국민들과 광주의 의료진, 봉사단원들 모두가 언어와 문화, 피부색을 떠나 한 가족인 만큼 손 맞잡고 미래를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조영표 의장도 축사를 통해 "광주시의회의 지원 조례를 통해 시작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광주시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광주일보의 열정과 헌신으로 태동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캄보디아에 희망을 심어 주신 광주 의료진들과 봉사단원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이 끝난 뒤 박찬국 조대병원 부원장과 임동훈 교수 등 조대병원 의료진과 박석인 원장과 의료진, 우리아동병원 한승표 원장,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과 의료진 등이 이틀간 9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윤장현 시장도 1년 7개월만에 안과 환자 진료와 익상편 환자 수술을 했으며, 서정성 원장은 백내장 환자 2명을 수술하

기도 했다. 조대병원 박찬국 부원장은 진료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환자 20여명을 상대로 내시경 진료를 한 뒤 처방을 하기도 했다.

광주시의원들은 34도를 오르는 폭염속에서 마을 방역활동과 현지 주민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고, 최한진·박가령 등 수피아여고와 송원고 동아리인 '청소년 희망나무' 회원 9명은 의료지원과 함께 현지 마을과 학교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올해로 개원 1년을 맞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지금까지 2만3000여명의 현지인들에게 '광주 인술'을 제공했고, 현지 어린이 3명을 조산대병원에서 초정해 수술을 해주기도 했다.

/캄프스푸(캄보디아)=최권일기자 cki@

"자료 삭제" ... 국정원 직원 유서 남기고 숨져

국정원 해킹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이 "내국인에 대해 (해킹)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관련기사 4면>

지난 18일 낮 12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아산 중턱에서 입묘(45·국정원 직원)씨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변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발견 당시 입씨는 운전석에 앉아 숨져 있었으며, 조수석에서는 A4 용지 크기의 노트에 자필로 쓴 유서 3장이 발견됐다. 19일 언론에 공개된 유서에서 입씨는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자료를 삭제한 것을 "실수였다"고 표현했다. 입씨는 국정원장, 차장, 국장에 게 적은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면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발견 당시 입씨는 운전석에 앉아 숨져 있었으며, 조수석에서는 A4 용지 크기의 노트에 자필로 쓴 유서 3장이 발견됐다. 19일 언론에 공개된 유서에서 입씨는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자료를 삭제한 것을 "실수였다"고 표현했다. 입씨는 국정원장, 차장, 국장에 게 적은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면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전남 금융기관 예금잔액 사상 첫 100조원 돌파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명중)는 5월 중 총수신(총예금)이 2조6417억원을 기록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총수신 잔액이 100조2448억원으로 '100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2년 전인 2013년 5월에는 88조1291억원, 지난해 5월에는 90조31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새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5월말 현재 총여신(총대출) 잔액은 2013

년 59조2758억원, 2014년 63조7285억원에 이어 올해 70조356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여신 잔액은 기업대출 27조1375억원, 가계대출 15조8254억원, 비은행금융기관 25조8889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나란히 2조8729억원, 1조7221억원, 1조7781억원 증가했다.

5월 중 총수신은 예금은행의 경우 교육정 교부금 유입과 5월 말 휴일에 따른 결제성 자금이 이월되면서 전달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장검사를 끝으로 20여년 봉직한 검찰을 떠나 고향 광주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광주승원고(16회), 서울대 법과대학 (83학번)
-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UC Berkeley 연수
- 제3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장검사(강남서 사건 담당)
-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장검사
- 광주지검 공판부장검사
- 부산지검 형사제2부장검사
- 법무부 국가승무과장/보호법제과장
-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팀장
-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순천지검, 울산지검 검사

변호사 김형렬 올림

■ 업무개시: 2015. 7. 10(금)
■ 개업장소: 광주 동구 지산로73 동명빌딩 203호

■ 대표전화: 062)227-0600
■ 팩 스: 062)227-060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삼성물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성원에 힘입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권 위임으로 힘을 모아주신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삼성물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삼성물산 임직원 일동